

# 옛말의 문법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그림 1: 훈민정음 언해(월인석보본)

---

# 차례

<b>1 총론</b>	<b>5</b>
1.1 문자	5
1.2 표기법	7
1.3 발음	8
1.4 중세어의 자료적 특성	11
<b>2 단어</b>	<b>13</b>
2.1 단어와 형태소	13
2.2 품사 분류	14
2.3 체언과 조사	14
(1) 명사	14
(2) 대명사	15
(3) 수사	15
(4) 조사	16
(5) 체언의 형태 바꿈	17
2.4 용언과 활용	18
(1) 자동사, 타동사, 보조 용언	18
(2) 불규칙 활용	19
(3) 어미	21

2.5 단어의 형성	24
<b>3 문 장</b>	<b>25</b>
3.1 문장의 성분	25
3.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26
(1) 사동과 피동	26
(2) 시간과 태도의 표현	27
(3) 높임과 낮춤	28
(4)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	29
(5) 문장의 종결	30
(6) 긍정과 부정	32
3.3 문장의 짜임새	32
(1) 문장 속의 문장	32
(2) 이어진 문장	33
(3) 문장과 이야기	34

---

---

# 제 1 장

---

## 총 론

### 1.1 문자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만들어지고, 세종 28년(1446)에 공포되었다.

새 문자의 글자 수는 28자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앞으로 ‘예의’라 일컬음.)에 서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발음법을 한자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1. (ㄱ) ㄱ은 엄쏘리니 君<sub>ㄱ</sub> 字 처섬 피어나는 소리 ㄱ<sub>ㅏ</sub>트니  
(나) · ㄴ은 呑<sub>ㄴ</sub> 字 가온뒷 소리 ㄱ<sub>ㅏ</sub>트니라.

1-(ㄱ)는 초성의 발음법을, 1-(나)는 중성의 발음법을 각각 설명한 것이다.

초성 17자는 그림 1.1과 같다.

세로 첫째 줄은 전청(全淸), 둘째 줄은 차청(次淸), 셋째 줄은 불청불탁(不淸不濁)이라 부른다. 현대 문법의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에 대체로 일치한다.

또, 예의에는 전청의 ‘ㄱ, ㄷ, ㅂ, ㅈ, ㅅ’와 차청의 ‘ㅎ’를 각각 나란히 쓰면 전탁(全濁)의 ‘ㄱ, ㄷ, ㅂ, ㅈ, ㅅ, ㅎ’의 6자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성 글자는 다음과 같다.

어금닛소리(아음)	ㄱ	ㅋ	ㆁ
혓소리(설음)	ㄷ	ㅌ	ㄴ
입술소리(순음)	ㅂ	ㅃ	ㅁ
잇소리(치음)	ㅈ, ㅊ	ㅉ	
목구멍소리(후음)	ㅇ	ㆁ	ㅇ
반혓소리(반설음)			ㄹ
반잇소리(반치음)			ㄷ

그림 1.1: 초성 17자

## 2. ㆍ,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ㅞ

이 가운데에서 ‘ㆍ, ㅡ, ㅣ, ㅏ, ㅑ, ㅓ, ㅕ’는 단모음이고, ‘ㅛ, ㅜ, ㅠ, ㅡ’는 이중모음이다.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초성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을 뿐이다.

## 3.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예의에는 글자 운용에 관련된 몇 가지 부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4. (㉠) 이어쓰기(연서)

(㉡) 나란히쓰기(병서)

(㉢) 붙여쓰기(부서)

(㉣) 음절이루기(성음)

(㉤) 점찍기(가점)

이어쓰기란, 주로 입술소리 ‘ㅂ’ 아래 ‘ㅇ’을 이어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 ‘빙’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가리킨다. 나란히쓰기란, 초성이나 중성을 합칠 때에는 ‘ㄱ, ㄷ, ㅂ, ㅃ’와 같이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것이다. 붙여쓰기란, 중성이 초성과 합칠 때에 놓이는 자리를 규정한 것이다. 음절이루기란, 모든 소리는 서로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점찍기란, 소리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성, 상성, 평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각 음절의 왼편에 한 점, 두 점을 찍거나 또는 찍지 않는다는 뜻이다.

## 1.2 표기법

중세의 한글 표기법은 현대 맞춤법과 다른 점이 많았다. 먼저 종성에서는 원칙적으로 8자만 허용되었다. ‘ㄱ, ㅎ, ㄷ, ㄴ, ㅂ, ㅍ, ㅅ, ㄹ’가 그것이다.

1. (ㄱ) 목소리, 스승, 날[곡식], 눈, 솥, 솜, 보비옷, 물  
(ㄴ) 받, 높고, 곳, 노스럽고

1-(ㄱ)는 8자 종성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현대와 차이가 없다. 1-(ㄴ)는 체언과 용언의 기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표음적 표기법이라 한다. 현대 맞춤법대로 고쳐 쓰면 ‘받, 높고, 곳, 높스럽고’가 된다. 이런 표기법을 표의적 표기법이라 한다.

그런데 중세 한글 문헌에도 표의적 표기법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2. 곳 도쿄, 딛동, 깊고, 맞나스뵈며, 깊거다

2와 같은 표기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 주로 나타난다. 또, 반치음과 겹받침이 종성으로 적혀지는 일도 있었다.

3. ㄹ 업스시니, ㅎ 구들, ㅅ ㄹ뵈

중세에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에 원칙적으로 이어적기를 하였다.

4. ㅂ ㄹ매, ㅅ미, 기픈, 그출씩

현대 맞춤법이라면 ‘ㅂ ㄹ매, 심이, 깊은, ㄱ을씩’와 같이 끊어적기를 할 수 있는 예이다. 중세 문헌에도 끊어적기를 한 예가 보인다.

5. 눈에, 일울, ㅅ을, ㅅ을, 안아, ㄹ아

이러한 표기는 월인천강지곡에 주로 나타난다. 사잇소리의 쓰임은 현대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였다.

6. (ㄱ) 나랏 말쌈, ㅅ곳  
(ㄴ) 아바넛 뒤, ㄱ ㄹ ㄱ새  
(ㄷ) ㄹ ㅅ 사름

(ㄱ)는 현대의 사이시옷의 쓰임과 같은 예이다. (ㄴ)는 현대와는 달리 유성 자음 아래 사이시옷이 쓰인 예인데, ‘엄쏘리’와 같이 뒷말의 초성과 병서되는 일도 있었다. c는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사이시옷이 쓰인 것인데, ‘鐵圍山 쓰시’와 같이 뒷말의 초성과 병서되기도 하였다.

중세에는 사이시옷 밖에 ‘ㄱ, ㄷ, ㅂ, ㅍ, ㅇ’의 다섯 글자도 사잇소리로 쓰였고, 반치음도 보인다.

7. 洪ㄱ字, 君ㄷ字, 侵ㅂ字, 漂ㅍ字, 快ㅇ字, 하늬 뜯, 나랏 일흠

중세의 한글 문헌은 현대와는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8. 나랏말쓰미中國에달아文字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씨 <훈민정음 언해>

중세의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는 각 글자마다 작은 크기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붙이었다.

9. 나랏말쓰미中囡國국에달아

그런데 월인천강지곡만은 한글음을 크게 먼저 적고 작은 크기의 한자를 다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그림 1.2). 또, 한자어에 음을 달지 않은 일도 있었다. 용비어천가와 두시 언해 등이 그러하다.

10. (ㄱ) 海東 六龍이 느르샤 <용비어천가 1장>

(ㄴ) 岐王스 집 안해 상네 보다니 <두시 언해 16,52>

### 1.3 발음

초성 17자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ㅇ, ㆁ, ○, △

‘ㅇ’는 현대의 받침의 ‘ㅇ’ 소리와 같은데, 현대와는 달리 음절의 첫머리에도 나타난다.

2. 바울, 그예, 미드니잇가

‘ㅎ’는 사잇소리로 쓰임을 이미 보았다. 이 글자는 관형사형 ‘ㄴ’ 아래 주로 쓰였는데, 된소리 부호의 기능을 띠고 있었다. ‘ㅎ’를 안 쓰면 뒤의 초성이 병서가 된다.



## 3.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도라오실 제 (도라오실 제)

‘ㅇ’는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달랐다.

4. (가) 아<sup>·</sup>스, 욕<sup>·</sup>(欲), 충<sup>·</sup>(此)  
 (나) 달<sup>·</sup>아, 앞<sup>·</sup>이, 못 노<sup>·</sup>픈 소리<sup>·</sup>오

(가)의 ‘ㅇ’는 음절이루기 규정에 따라 글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쓴 것으로, 특별한 소리값이 없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목구멍에서 나는 유성 마찰음이었다. 이들이 아무런 소리값이 없었다면 ‘다라, 아시, ...소리요’로 적혀야 하기 때문이다.

‘△’는 올림소리 사이에서 쓰였다.

5. 아<sup>·</sup>스, 한<sup>·</sup>숨, 몸<sup>·</sup>소

반치음 ‘△’는 ‘ㅅ’에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었다.

중세어에는 복합 초성 글자도 많은데, 각자 병서(各字並書)한 글자들과 합용 병서(合用並書)한 글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6. ㄱ, ㄴ, ㅁ, ㅂ, ㅅ, ㅆ, ㅎ, ㅍ

‘ㄱ, ㄴ, ㅁ, ㅂ, ㅅ, ㅆ’는 각자 병서한 글자로서, 현대의 된소리 글자와 모습이 같으나, 그렇게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

7. 흘<sup>·</sup>껏, 여<sup>·</sup>훔<sup>·</sup>찌<sup>·</sup>기, 뚝<sup>·</sup>쑹<sup>·</sup>고

‘ㅎ, ㅍ’는 매우 드물게 쓰였다. 이들 글자는 ㅏ (반모음) 앞에서 나타난다.

8. 치<sup>·</sup>혀<sup>·</sup>시<sup>·</sup>니, 도<sup>·</sup>르<sup>·</sup>혀<sup>·</sup>; 히<sup>·</sup>여<sup>·</sup>, 쥐<sup>·</sup>여<sup>·</sup>

다음은 합용 병서의 예이다.

9. (가) ㅁ<sup>·</sup>ㅅ, ㅁ<sup>·</sup>ㅅ, ㅁ<sup>·</sup>ㅅ, ㅁ<sup>·</sup>ㅅ  
 (나) ㅅ<sup>·</sup>ㅅ, ㅅ<sup>·</sup>ㅅ, ㅅ<sup>·</sup>ㅅ  
 (다) ㅁ<sup>·</sup>ㅅ, ㅁ<sup>·</sup>ㅅ

이들 글자의 발음이 글자의 모양대로 중자음이었는지 단순한 된소리 표기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글자를 가진 어휘가 대부분 현대에 와서 된소리로 바뀌었으므로 보통 된소리로 읽고 있다.

10. (가) ㅍ<sup>·</sup>ㅍ, ㅍ<sup>·</sup>ㅍ, ㅍ<sup>·</sup>ㅍ

- (나) 소<sup>·</sup>리, 짜, 썸  
(다) 뽐, 뻘

‘빙’은 이어쓴 복합 글자이다. 받침음 △와 같이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난다.

### 11. 사<sup>·</sup>비, 대<sup>·</sup>힘, 글<sup>·</sup>발

이 글자는 ‘ㅂ’에 대립되는 유성 양순 마찰음이었다.

중성 글자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이다. 이 글자는 후설 저모음으로 발음되었다.

### 12. 득<sup>·</sup>리, 노<sup>·</sup>훈

복합 중성 글자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은 반모음 ‘ᄀ’가 뒤에 서는 이중 모음이다.

### 13. 이, ㅞ, ㅟ

이런 모음들은 글자의 모양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발음에 준하여 단모음으로 읽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 14. ㅓ, 내<sup>·</sup>히, 게<sup>·</sup>을이

중성에 쓰이는 글자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은 ‘ㅓ’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받침 ‘ㅓ’의 발음이 ‘ㄷ’와 차이가 없으나, 중세어에서는 치성(齒聲)이 약간 들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발음 관습에 따라 ‘ㄷ’ 소리로 읽고 있다.

중세의 단모음은 다음의 7개였다.

15. (가) ·, ㅓ, ㅕ  
(나) ㅡ, ㅑ, ㅓ  
(다) ㅣ

(가)는 양성 모음, (나)는 음성 모음, (다)는 중성 모음이다. 원칙적으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중성 모음은 두 계열의 모음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음성 모음과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현상을 모음 조화라 하는데, 모음 조화는 현대어보다 중세어에 더 넓게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15. (가) 소<sup>·</sup>늘, 소<sup>·</sup>늘, 노<sup>·</sup>내, ...; 자<sup>·</sup>븐, 자<sup>·</sup>븐니, 자<sup>·</sup>바, ...  
(나) 브<sup>·</sup>른, 브<sup>·</sup>를, 브<sup>·</sup>레, ...; 머<sup>·</sup>근, 머<sup>·</sup>그니, 머<sup>·</sup>거, ...

(ㄷ) 길흙, 길흙, 길흐로, 길흐로, ...; 니좁, 니좁, ...

앞의 묶음은 체언에 조사가 붙는 예이고, 뒤의 묶음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는 예이다.

## 1.4 중세어의 자료적 특성

중세어는 흔히 10세기 초의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16세기 말까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언어의 실상을 잘 파악하려면 15세기 중엽부터 나오기 시작한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한글에 의하여 우리말의 본 모습이 제대로 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옛말이라 함은 이 시기의 국어를 가리킨다.

중세어의 한글 문헌은 악장, 변안 산문 자료, 언해 자료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고려 가요도 중세어의 자료에 편입될 수 있다. 악장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대표적이며, 변안 산문 자료에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가 있다. 언해 자료에는 훈민정음 언해, 법화경 언해 등의 불경 언해와, 두시 언해, 소학 언해 등이 있다. 고려 가요는 악학궤범과 악장가사 등에 실려 있는데, 몇몇 특수 어휘를 제외하고는 중세어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림 1.2: 월인천강지곡

언해 자료는 구결문(口訣文)과 언해문(諺解文)이 짝을 이루고 있다.

1. (가)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나) 나라 말쓰미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 언해>

(가)는 구결문이다. 구결문이란, 한문 원문에 우리말 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결(토)을 단 문장을 가리킨다. 언해문이란, (나)와 같이 구결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문장을 가리킨다. 언해 자료라 하더라도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달지 않은 것이 있다. 두시 언해가 그러하다.

2. (가) 昔聞洞庭水

(나) 네 洞庭人 무를 듣다니 <중간본 14,13>

중세어의 자료는 한 번 이상 번역된 것이 더러 있다. 법화경은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 언해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번역되었으며, 소학은 번역 소학과 소학 언해란 이름으로 두 번 번역되었다. 대체로 첫 번역은 의역(意譯)이고, 그 다음부터는 직역(直譯)이다.

3. (가) 伊川先生이 大學館 제도를 보와 즈세 딩ᄃᆞᆫ시니 <번역 소학 9,16>
- (나) 伊川先生이 學제도를 看詳ᄃᆞᆫ시니 <소학 언해 6,14>

3은 소학의 ‘伊川先生 看詳學制’를 번역한 것인데, 3-(가)의 번역 소학에서는 뒤의 구절을 자세히 풀었으나, 3-(나)의 소학 언해에서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직역일수록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

# 제 2 장

---

## 단 어

### 2.1 단어와 형태소

중세어의 단어와 형태소의 분석 원리는 현대어와 같다.

1. 식미 기픈 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썸 <용비어천가 2장>

위의 예는 붙여 쓴 중세어의 한 문장을 어절 단위로 띄어 써 본 것이다. 이를 다시 단어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심, 이, 기픈, 물, 은, ㄱ물, 애, 아니, 그출썸

문장 1은 모두 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1은 다시 형태소로 나누어진다.

3. 심, 이, ㅁ, 은, 물, 은, ㄱ물, 애, 아니, ㅁ, 을썸

이 가운데에서 ‘심, 물, ㄱ물, 아니’는 자립 형태소이며, 나머지는 의존 형태소이다. 한편, ‘심, ㅁ, 물, ㄱ물, 아니, ㅁ’은 실질 형태소이며,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이다.

## 2.2 품사 분류

중세어도 현대어와 같이 9품사를 둘 수 있다.

1. 식미 기픈 므른 <용비어천가 2장>
2. 내(나 | ) 이룰 爲하야 <훈민정음 언해>
3. 弟子 하나홀 주어시든 <석보상절, 6,22>

1의 ‘십, 물’은 명사, 2의 ‘나, 이’는 대명사, 3의 ‘하나ㅎ’는 수사이다.  
그리고 이들 체언에 붙는 ‘이, 은, |, 를, 을’은 조사이다.

4. 毒을 내느다 ㅎ논 마리오 <석보상절 13,7>
5. 須彌는 ㄱ장 ㄴ다 ㅎ논 ㅍ디라 <월인석보 1,17>

4의 ‘내다’는 동사, 5의 ‘눅(눅)다’는 형용사이다. 중세어의 동사도 현재 시제를 표시할 경우에는 현대어와 같이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를 취한다.

6. 물읷 字 |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훈민정음 언해>
7. ㄱ르 알면 外道 | 오 <월인석보 1,51>

6의 ‘물읷’은 관형사, 7의 ‘ㄱ르’는 부사이다.

8. 엿 올ㅎ시이다 <석보상절 13,47>

8의 ‘엿’은 감탄사이다.

## 2.3 체언과 조사

### (1) 명사

중세어도 고유 명사와 의존 명사가 확인된다.

1. 나랏 말쓰미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 언해>
2. 니르고져 흙 배(바 | ) 이셔도 <훈민정음 언해>

1의 ‘中國’은 고유 명사이고, 2의 ‘바’는 의존 명사이다. ‘바’는 여러 성분으로 두루 쓰인다.

## (2) 대명사

중세어에도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다.

1. (가) 내(나 | ) ...스믈여뵤 字를 딩그노니 <훈민정음 언해>  
 (나) 長子 | 네(너 | ) 아비라 <월인석보 8,98>  
     그디는 ...가난흔 젓 사피요물 보디 아니흐는다 <두시 언해 25,56>  
 (다) 어린 百姓이 ...므츨내 제(저 | ) 뜰들 시러 떠디 못홀 노미 하니라 <훈민정음 언해>  
 (래) 淨飯王이 깃그샤 부텃 소닐 손소 자브샤 즈갓(즈가사) 가스매 다히시고 <월인석보 10,9>

1의 밑줄 그은 말은 인칭 대명사이다. (가)의 ‘나’는 제1인칭 대명사로서, 현대어와 같다. (나)의 ‘너’는 제2인칭 대명사로서, 현대어와 같다. ‘그디’는 ‘너’보다는 약간 대우하는 제2인칭 대명사인데, 현대어의 ‘그대’와는 다르다. (다)의 ‘저’는 앞의 ‘어린 백성’을 도로 가리키는 대명사인데, 현대어와 차이가 없다. (래)의 ‘즈가’는 ‘저’의 높임말로써 현대에는 방언에만 일부 남아 있다.

2. (가) 내 이를 爲호야 어엿비 너겨 <훈민정음 언해>  
 (나) 모물 百千 디위 브료민들 므스기 어러브료 <석보상절 11,20>  
 (다) 그어귀 쇠 하아 <월인석보 1,24>

2는 지시 대명사이다. (가)의 ‘이’는 사물을 표시하는데, 현대어와 같이 ‘그, 더’와 관계를 맺고 있다. (나)의 ‘므스’는 미지칭이다. 미지칭에는 ‘어드, 현마, 엿데’ 등이 있다. (다)의 ‘그어귀’는 처소를 표시하는데, ‘이어귀, 더어귀’와 관계를 맺고 있다.

## (3) 수사

중세어에도 수사는 고유어계와 한자어계가 있었다.

1. 하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섯, 여섯, 칠곱, 여덟, 아홉, 열ㅎ, ...스믈ㅎ, 설흔, 마흔, 원, 여원, 일흔, 여든, 아흔, 온, 즈믄, ...뫏, 여러ㅎ

1은 고유어계 수사인데, 몇몇 수사는 끝에 ‘ㅎ’가 나타난다.

2. 하나차히, 둘차히, 세차히, 네차히, ..., 열차히

2는 고유어계 서수사이다. 양수사에 ‘차히’가 붙어 이루어진다. ‘첫째’를 의미하는 서수사가 현대어와 다르다.

한자어계 수사는 현대어와 차이가 없다.

#### (4) 조사

중세어의 조사는 현대어보다 형태를 바꾸는 일이 더 많다.

1. (가) ㄴ, ㄴ, ㄴ, ㄴ
- (나) ㄴ, ㄴ, ㄴ, ㄴ
- (다) ㄴ로, ㄴ로, ㄴ로

(가)는 대조의 보조사, (나)는 목적격 조사, (다)는 도구의 부사격 조사이다. 현대어와는 달리, 이들은 체언의 끝소리와 체언의 모음에 따라 바뀐다. ‘ㄴ, ㄴ / ㄴ, ㄴ ; ㄴ, ㄴ / ㄴ, ㄴ ; ㄴ로 / ㄴ로, ㄴ로’의 쌍은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선택된다. 또, ‘ㄴ, ㄴ / ㄴ, ㄴ ; ㄴ, ㄴ / ㄴ, ㄴ ; ㄴ로 / ㄴ로’의 쌍은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선택된다. ‘ㄴ’은 ‘ㄴ’ 아래에도 나타난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2. (가) ㄴ스ㄴ, 거우루는, 사ㄴ믄, 수ㄴ
- (나) ㄴ스ㄴ, 거우루ㄴ, 사ㄴ믄, 수ㄴ
- (다) 소ㄴ로, 꾸므로, 左手로, ㄴ믄로

다음은 모음 조화 규칙만 적용되는 조사이다.

3. (가) ㄴ / ㄴ
- (나) ㄴ / ㄴ / ㄴ

(가)는 관형격과 처소의 부사격 조사이고, (나)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이다. (가)의 ‘ㄴ’, (나)의 ‘ㄴ’은 양성 모음 아래에 쓰이고, (가)의 ‘ㄴ’, (나)의 ‘ㄴ’은 음성 모음 아래에 쓰이며, ‘ㄴ’은 중성 모음 아래에 각각 쓰인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4. (가) 도ㄴ기 알ㄴ, 大衆의 거ㄴ
- (나) ㄴ해, ㄴ허ㄴ, ㄴㄴ

조사 가운데에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일이 있다.

5. (가) ㄴ, |, ∅
- (나) ㄴ라, |라, ∅라

(가)는 주격 조사이고, (나)는 서술격 조사이다. 서술격 조사는 형태상으로 볼 때에 주격 조사에 ‘라’가 붙은 것이다. ‘ㄴ’은 자음 아래에 쓰이고, ‘|’는 ‘|’밖의 모음 아래에 쓰인다. ∅(영)이란, ‘|’ 모음 아래에서 형태가 실현되지 않음을 뜻한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6. (가) 식미 기픈,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드리 업건마룬  
 (나) 樓는 다라기라, 여숫차트 히 乙酉 | 라, 齒는 나라

조사 가운데에서 ‘ㄱ’로 시작하는 것은 특정한 소리 아래에서 ‘ㄱ’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

7. (가) 과 / 와  
 (나) 곳 / 옷  
 (다) 가 / 아

(가)는 동반, 비교, 접속의 조사이며, (나)는 단독의 보조사, (다)는 의문 보조사이다. 현대어의 ‘과 / 와’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선택되지만 중세어에는 ‘ㄱ’ 받침 아래서도 ‘와’가 쓰였다. 나머지도 같다.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8. (가) 입과 눈과, 나모와 투구, 히와 들와  
 (나) 威神곳, 아니옷, 일옷  
 (다) 賞가 罰아

중세어의 조사도 현대어와 같이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의 세 갈래를 둘 수 있다. 특징적인 사실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9. (가) 부덧 모미 여러 가짓 相이 ㄱ즈샤 <석보상절 6,41>  
 (나) 무퇴 靑蓮花 | 나며 <월인석보 2,31>  
 (다) 님금하 아르쇼셔 <용비어천가 125장>

(가)는 현대어의 사이시옷이 중세어에는 관형격으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보통, ‘부터’와 같은 높임의 명사와 ‘나라’(나랏 말쑥)와 같은 무정 체언에 붙었다. (나)는 보통의 관형격 ‘의’가 처소의 부사격으로 쓰인 것이다. (다)는 중세어에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10. 입시울와 혀와 업과 니왜 다 ㄷ호며 <석보상절 19.7>

10은 명사가 접속 조사에 기대어 이어질 때에 마지막 명사에도 접속 조사가 붙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5) 체언의 형태 바꿈

중세어에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많다.

1. (가) 고졸~꽃과, 비츠로~빛과, 니페~넙과  
(나) 밧기~밧, 알퓌~얹과, 붓기~붓과

(가)는 8중성 밖의 받침으로 끝난 체언이 바뀌는 것이고, (나)는 겹받침을 가진 체언이 바뀌는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는 이런 바뀔을 표기상에 반영하지 않으나, 중세어에는 소리대로 표기하였다.

2. 갈히, 갈해, 갈흘, 갈과 [비교: 갈 쓰기]

2는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ㅎ’가 모음과 ‘ㄱ’로 된 조사 앞에서는 나타나는 예이다.

3. (가) 골으로, 골이라 [비교: ㄱㄹ 麵]  
(나) 앓은, 앓이, 앓을 [비교: 아스 弟]  
(다) 시, 시라 [비교: 업슬 슌]

3은 체언의 끝모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탈락하는 예들이다. (가)는 ‘ㄹ’로 끝나는 말이 한 음절로 줄어들면서 끊어적기가 되어 있다. 같은 ‘ㄹ’로 끝나는 명사라 하더라도 ‘ㅎㄹ’와 같은 말은 ‘ㄱ’가 겹쳐져 ‘홀른’이 된다. (나)는 ‘스’로 끝나는 말이 한 음절로 줄어들면서 역시 끊어적기가 되어 있다. (다)는 의존 명사 ‘스’의 끝모음이 떨어진 것이다.

4. 가히 모미 [비교: 가히], 그러기 소리 [비교: 그러기], 아비 나해서 [비교: 아비]

4는 ‘ㅣ’로 끝나는 유정 명사가 관형격 조사와 결합되면 ‘ㅣ’가 탈락되는 예이다.

5. 남기, 남근, 남기, 남굴 [비교: 나모]  
굶기, 굶근, 굶기, 굶글 [비교: 구무]

5는 ‘모 / 무’로 끝나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면 끝모음이 떨어져서 고 대신 ‘ㄱ’이 덧생기는 예이다. ‘느’로 끝나는 ‘녀느’도 같은 방식으로 변화한다.

## 2.4 용언과 활용

### (1) 자동사, 타동사, 보조 용언

중세어의 동사도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1. (가) 十方諸國을 보기 하시니 <월인석보 8,1>  
 (나) 내 孫子 조차 가게 하라 <석보상절 6,9>

현대어와 같이 목적어의 있고 없음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가)는 타동사이고, (나)는 자동사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범주를 구별하는 요소가 활용형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

2. (가) 艱難을 사름 보아든 <석보상절 6,15>  
 (나) 석 들 사르시고 나아 가거시닐 <월인석보 10,17>

(가)는 ‘보다’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아’가 쓰였고, (나)는 ‘가다’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거’가 쓰였다.

중세어에도 보조 용언이 발견된다.

3. (가) 地獄을 벗아 브려 <월인석보 21,181>  
 (나) 赤眞珠 | 드외야 잇느니라 <월인석보 1,23>

‘브리다’는 완료의 보조 동사이고, ‘잇다’는 상태의 보조 형용사이다.

## (2) 불규칙 활용

중세어도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

1. (가) 브터~븐고, 업서~업게  
 (나) 파, 폼 [비교: 푼고]  
 (다) 달아, 달음 [비교: 다르거늘]  
 (라) 굶어, 굶음 [비교: 그슨]  
 (마) 아디, 안, 아느니라, 아습고 [비교: 아롬, 알리오, 아르시니, 아르쇼셔, ...]

(가)는 8자 중성 밖의 자음으로 된 어간과 겹받침을 가진 어간이 바뀌는 것이다. (나)는 ‘으 /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어미 앞에서 끝 모음이 탈락하는 것이다. (다)는 ‘르’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어미 앞에서 한 음절로 줄어지면서 ‘르’가 끊어적기가 되는 것인데, 같은 ‘르’로 된 ‘모르다’의 경우는 ‘르’가 덧생겨 ‘몰라’가 된다. (라)는 ‘스’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어미 앞에서 ‘으’가 떨어지고 ‘△’가 끊어적기가 되는 예이다. (마)는 ‘르’ 받침을 가진 어간이 떨어지는 것인데, 현대어와는 달리 ‘시’ 앞에서도 ‘르’가 그대로 유지된다.

2. (가) 몰라, 느라 / 주거, 버서 ; 슬보되, 노포라 / 업수되, 어두라

(ㄴ) 자븐, 자븐며, 자븐이다 / 업슨, 업스며, 업스이다

2는 어미가 모음 조화 규칙에 의하여 바뀌는 것이다. (ㄱ)는 연결 어미 ‘아 / 어’와 ‘오 / 우’ 계통의 어미가 어간의 모음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ㄴ)는 매개 모음 ‘으 / 으’가 어간의 모음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중세어에도 어간과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

3. (ㄱ) 지서, 지스니 [비교: 버서, 버스니, ...]

(ㄴ) 더벼, 더브니 [비교: 자바, 자븐니, ...]

(ㄷ) 기러, 기르라 [비교: 어더, 어드니, ...]

3은 현대어의 ‘ㅅ, ㅂ, ㄷ’ 불규칙 활용의 소급형이다.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ㅅ’ 불규칙 활용은 ‘ㅅ’로 바뀌고,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ㅂ’ 불규칙 활용은 ‘ㅃ’로 바뀌는 것이 현대어와 다르다.

4. (ㄱ) 심거, 심군, 심곰 [비교: 시므는, 시므고, ...]

(ㄴ) 잇다, 잇고, 잇더니 [비교: 이셔, 이쇼니, 이시며, 이시나, ...]

(ㄷ) 니거시든, 니거늘 [비교: 녀 (보니), 녀, 녀실 (씨라), ...]

4는 개별 어휘의 어간이 바뀌는 것이다. (ㄱ)는 ‘시므-’가 모음 어미 위에서 ‘심-’으로 바뀌는 예이다. (ㄴ)는 ‘이시-’가 자음 어미 앞에서 ‘잇-’으로 바뀌었고, (ㄷ)는 ‘녀-’가 ‘거’ 앞에서 ‘니-’로 바뀌었다.

5. (ㄱ) 흐리라, 흐리러니, 흐리로다 [비교: 흐다, 흐더니, 흐도다, ...]

(ㄴ) 알어늘, 드외오, 하늘히어늘 [비교: 가거늘, 가고, ...]

(ㄷ) (第一)이름, 이로디, 이로라 [비교: 닷곰, 닷고디, 닷고라, ...]

(ㄹ) 앓거늘, 앓거다 ; 오나늘, 오나다 [비교: 바다늘, 바다다 ; 머거늘, 머거다, ...]

(ㅁ) 햏야, 햏야셔 [비교: 꺼, 꺼셔, ...]

5는 어미가 일정한 환경에서 바뀌는 예이다. (ㄱ)는 ‘ㄷ’ 계통의 어미가 ‘-리-’ 뒤에서 ‘ㄹ’ 계통의 어미로 바뀌었다. (ㄴ)는 ‘ㄱ’ 계통의 어미가 ‘ㄹ’, 이중 모음의 반모음 ‘ㅣ’, 서술격 조사 아래에서 후두 유성 마찰음 ‘ㅇ’로 바뀌었다. (ㄷ)는 ‘오’ 계통의 어미가 서술격 조사 아래에서 ‘로’ 계통의 어미로 바뀌었다. (ㄹ)는 타동사에 나타는 ‘아 / 어’가 자동사와 ‘오다’ 뒤에서 ‘거, 나’로 바뀌었다. (ㅁ)는 현대어의 ‘여’ 불규칙 활용의 소급형이다. 같은 ‘ㅇ’로 되어 있어도 ‘푼다’의 경우는 그것이 떨어지는데, ‘햏-’의 뒤에서는 ‘야’ 계통의 어미가 붙는다.

## (3) 어미

중세어에서도 어미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1. (ㄱ) 습, 줍, 습
- (나) 시
- (다) 이

1은 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다. (ㄱ)는 객체 높임을 표시한다. ‘-습-’은 어간의 끝소리가 ‘ㄱ, ㄷ, ㅅ, ㅎ’일 때, ‘-줍-’은 ‘ㄷ, ㅈ, ㅊ’일 때, ‘-습-’은 유성음일 때에 각각 나타난다. 이들 형태들은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 ‘병’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1. (ㄱ) 막습거늘, 듣줍게, 보습게 ; 돕스븨니, 얻즈바, ㄹ초스바

‘-습-’은 선어말 어미 가운데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결합되는 어미도 가장 많다.

(나)는 주체높임의 선어말 어미이다. ‘-시-’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로 바뀐다.

1. (나) 가시고, 가시니 ; 가샤, 가삼, 가샤되, 미드샷다, 定호샷, 피샤늘

‘가샤(가샤아)’에서는 연결 어미 ‘-아’가 떨어졌다. ‘가삼(가샤음)’ 등과 ‘피샤늘’(피샤아늘)에서는 어미의 일부분인 ‘오’와 ‘아’가 떨어졌다. ‘-시-’는 ‘-습-’ 다음에 자리잡는다. ‘-시-’는 ‘ㅎ거시늘, ㅎ더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 더’ 뒤에 놓이기도 한다.

(다)는 상대 높임법의 ㅎ쇼셔체의 선어말 어미다.

1. (다) ㅎ느이다, ㅎ느니잇가

‘-이-’는 평서형에서 나타나는데, 의문형에서는 ‘-잇-’으로 바뀐다.

2. (ㄱ) -느-
- (나) -더-
- (다) -리-

2는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다. (ㄱ)의 ‘-느-’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데,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되면 ‘ㅎ노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ㄴ-’로 바뀐다. (나)의 ‘-더-’는 회상의 선어말 어미인데, ‘-오-’와 결합되면 ‘-다-’로 바뀐다. ‘-리-’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인데, 관형사형에서는 ‘-리-’로 실현된다. 이들 어미는 평서형, 의문형과 연결 어미 ‘-니’,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2. (가) 흐는다, 흐느녀, 흐느니, 흐는  
 (나) 흐더라, 흐더녀, 흐더니, 흐던  
 (다) 흐리라, 흐려, 흐리니, 흘

중세어에는 현대어에서는 볼 수 없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 3. -오-

‘-오-’는 음성 모음 아래에서는 ‘-우-’로, 서술격 조사 아래에서는 ‘-로-’로 바뀐다. 이 어미는 평서형, 연결 어미 ‘-니’,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 3'. (가) 호라, 흐노라, 흐다라, 호리라 [비교: 흐다, 흐는다, 흐더라, 흐리라]  
 (나) 호니, 흐노니, 흐다니, 호리니 [비교: 흐니, 흐느니, 흐더니, 흐리니]  
 (다) 혼, 흐논, 흐단, 흘 [비교: 혼, 흐논, 흐던, 흘]

3'에서는 ‘-오-’가 빠진 어형이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 형태소의 자격이 있다. 같은 ‘-오-’ 계통의 어미라 하더라도 비교되는 어형이 없는 경우는 형태소가 될 수 없다. ‘-옴, -오딧’의 ‘오’는 ‘口’, ‘딧’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으므로 형태소의 일부분일 뿐이다.

4. (가) -거-  
 (나) -니-  
 (다) -뎡-

4는 믿음과 느낌의 선어말 어미이다. (가)는 주관적 믿음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인데, ‘-오-’와 결합되면 ‘흐과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로 바뀐다. ‘-거-’는 ‘-어- / -아-’와 대립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어형이 있을 경우에만 형태소의 자격이 있다.

4. (가) 가거다 / 바다다, 가리어다 / 바드려다, 가거녀 / 바다녀 [비교: 가다 / 받다, 가리라 / 바드리라, 가녀 / 바드녀]

‘거’를 가진 어미라도 비교되는 어미가 없는 것은 형태소의 자격이 없다. ‘-거늘 / -어늘’은 ‘거/어’가 떨어진 ‘늘’이 연결 어미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옴, -오딧’의 경우와 같다.

(나)는 객관적 믿음을 표시하는데, 현대어와 큰 차이가 없다. 선어말 어미 ‘-느-, -더-’ 뒤에 나타난다.

4. (ㄴ) 흐느니라, 흐느니이다, 흐더니라

(ㄴ)는 느낌의 선어말 어미다.

4. (ㄷ) 흐도소이다, 흐도소녀, 흐도다

‘흐도소이다, 흐도소녀’는 ‘흐도스이다, 흐도스녀’에서 ‘-dot-’ 다음의 매개 모음 ‘.’가 동화에 의해 ‘ㅅ’로 바뀐 것이다. ‘-dot-’은 자음 위에서 ‘ㅅ’가 떨어져 ‘-do-’가 된다. 이 밖에 느낌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에는 ‘-ot-, -s-’가 있다. ‘흐눓다, 흐소라’에서 확인된다.

5. (ㄱ) 흐다, 흐이다

(ㄴ) 흐녀, 흐니잇가 ; 흐다, 흐다 ; 흐가 흐가

(ㄷ) 흐라, 흐쇼셔

(ㄹ) 흐져, 흐사이다

5는 주로 중세어의 종결형을 아주낮춤인 흐라체, 아주높임인 흐쇼셔체의 두 상대 높임법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ㄱ)는 평서형인데, 그 앞에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를 앞세울 수 있다. 중세어에는 ‘-다’ 밖에 ‘-니라’로 끝나는 특수한 평서형이 있었다. (ㄴ)는 의문형이다. ‘-녀’는 제 1,3인칭 의문문 어미이고, ‘-다, -고’는 제2인칭 의문형 어미이다. ‘-다, -고’는 간접 의문형 어미이다.

제 1,3인칭 의문형 어미와 간접 의문형 어미는 물음말과 함께 사용될 때에 ‘-뇨, -니잇고, -고, -고’로 바뀐다. (ㄷ)의 ‘-라, -쇼셔’는 명령형 어미이고, (ㄹ)의 ‘-져, -사이다’는 청유형 어미이다. 이 밖에 중세어에는 ‘-니, -리’로 끝나는 반말이 있었다.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는 대부분 현대어와 큰 차이가 없다. 명사형 어미로 ‘-음 / -음’ 밖에 ‘-디’가 있었다. 또,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일이 간혹 있었다.

6. (ㄱ) 다 읷 업 슨 긴 ㄱ ㄹ 문 니 섬 니 셔 오 눓 다 <두시 언해 10,35>

(ㄴ) 德 이 여 福 이 라 호 늘 나 으 라 오 소 이 다 <악학궤범, 동동>

6.(ㄱ)의 ‘다읷’은 ‘ㄱ’ 관형사형이 명사적으로, (ㄴ)의 ‘흔’은 ‘ㄴ’ 관형사형이 각각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다.

## 2.5 단어의 형성

중세어의 단어 형성도 파생법과 합성법의 체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어와 다른 점만 간추리기로 한다.

1. (가) 우숨, 우름  
 (나) 노퍽, 기퍽  
 (다) ᄃ물다, 깃다  
 (라) 저기, 불기, 키

1은 현대어에는 보기 어려운 파생법이다. (가)는 동사의 명사 형성법인데, ‘웃-, 울-’에 접미사 ‘-움’이 붙었다. 활용형이 명사 형성의 접사로 굳어진 예이다. (나)는 형용사의 명사 형성법인데, 접미사 ‘-의 / -의’가 붙었다. (다)는 명사 ‘ᄃ물, 깃’에 영(0)의 접사가 붙어 동사 어간이 된 것이다. 현대어에도 이런 형성법이 있지만, 중세어에는 더 풍부하였다. (라)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를 붙여 부사를 만드는 것인데, 현대어보다 더 생산적이었다. 현대어에서는 이들 어휘 대신 ‘적게, 밝게, 크게’와 같은 활용형이 사용된다.

2. (가) 듣보다, 그치누르다, 빌먹다  
 (나) 도랏다, 흑덕다

2는 현대어에는 보기 어려운 합성법이다. (가)는 동사 어간끼리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 동사인데, 현대어보다 더 생산적이었다. (나)는 형용사 어간끼리 합쳐진 합성 형용사이다. 이런 단어 형성 역시 현대어에서는 보기 어렵다.



---

---

## 제 3 장

---

### 문 장

#### 3.1 문장의 성분

중세어도 현대어에 준하여 문장 성분을 세울 수 있다. 현대어와 다른 점만 간추리기로 한다.

1. (가) 迦葉의 能히 信受호믈 讚歎하시니라 <월인석보 13,57>  
(나) 諸子 | 아비의 便安히 안즌 들 알오 <법화경 언해 2,138>  
(다) 前生엿 이리 전츨 因緣이라 호고 <월인석보 1,11>  
(래) 늘근 늘근 브름 사르미 잇느니 <월인석보 13,23>

1의 밑줄 부분은 관형어의 특수성에 관련된 예이다. (가)는 의미상의 주어가 관형어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어에는 이런 구성법이 많다. 관형격 조사 앞에서 유정 명사의 ‘|’ 모음은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에서처럼 절의 주어가 될 때에는 ‘|’ 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는 처소의 부사격과 관형격 ‘ㅅ’가 결합되어 체언을 관형어가 되게 하는 예이다. (래)는 관형사형이 셋이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어라면 앞의 관형어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된다.

2. (가) 섬 안해 자심 제 <용비어천가 67장>  
(나) 海東 六龍이 ... 古聖이 同符하시니 <용비어천가 1장>

2의 밑줄 부분은 부사어의 특수성에 관련된 예이다. (가)는 낙착점 처소 부사격 조사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처소를 표시하는 예이다. (나)는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이’가 동등 비교의 부사격으로 쓰인 예이다.

3. (가) 文殊아 아라라 <석보상절 13,26>  
 (나) 님금하 아라쇼셔 <용비어천가 125장>

3은 독립어 가운데에서 특수성을 띤 것이다. (가)는 상대방의 신분이 낮을 때에 쓰이고, (나)는 높을 때에 쓰인다.

## 3.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1) 사동과 피동

중세어의 사동문도 현대어와 형성 절차가 같다.

1. (가) 한비를 아니 그치샤 <용비어천가 68장>  
 (나) 太子 | 道理 일우샤 <석보상절 6,5>

1은 사동사에 기댄 사동문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동문이 바탕이 되어 있다.

1. (가) 한비 그치다  
 (나) 道理 일다

다음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의 결합에 기대어 형성된 사동문이다.

2.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람 드외에 흐시리라 <월인석보 1,8>

중세어의 피동문도 현대어와 큰 차이가 없다. 피동사에 기댄 피동문이 적을 뿐이다.

3. 東門이 도로 다티고 <월인석보 23,80>

3은 다음과 같은 능동문이 바탕이 되어 있다.

- 3'. (獄主) 東門을 닫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옥주’가 동작주로 설정된다.

4. 피해 살이 박거늘

4는 접미사에 기대지 않고 바로 피동문이 된 것이다. 중세어에는 이런 동사가 많다.

5. 브락매 竹筍이 긱거뱃고 <두시 언해 15,8>

5는 ‘-어 디다’에 기댄 피동문이다. 이런 피동문은 많지 않았다.

## (2) 시간과 태도의 표현

1. (가) 네 이제 쯔 물늑다 <월인석보 23,97>

(나) 내 오늘 實로 無情호라 <월인석보 21,219>

1의 밑줄 부분은 현재 시제이다. 동사에서는 (가)와 같이 선어말 어미 ‘-늑-’에 기대어 현재 시제가 표시된다. 그러나 형용사는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특별한 형태가 없다.

2. (가)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악장가사, 청산별곡>

(나) 네 아비 흐마 주그니라 <월인석보 17,21>

(다) (세존)...舍利佛을 須達이 조차 가라 흐시다 <석보상절 6,22>

2의 밑줄 부분은 과거 또는 그와 비슷한 상황을 표시한다. (가), (나)는 대화의 표현으로서 과거 시제가 분명하다. (다)는 지문의 표현으로서 과거의 사실을 설화하는 데 쓰인다.

3. (가) (須達) ... 그딛 썩를 맞고져 흐더이다 <석보상절 6,15>

(나) 내 룽담흐다라 <석보상절 6,24>

(다) 쁘테 몬 마즌 이리 다 願ㄹ터 드외더라 <월인석보 10,30>

3의 밑줄 부분은 과거 회상이나 그에 관련된 의미를 표시한다. (가)는 현대어와 같고, (나)는 주어 명사가 제1인칭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다-’는 ‘-더-’에 선어말 어미 ‘-오-’가 화합된 것이다. (다)는 과거의 일을 설화하는 지문에 쓰인다. 2-(다)와 같은 기능을 띠고 있다.

4. 聖神이 니스샤도 敬天勤民 흐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용비어천가 125장>

4는 미래 시제이다. 여기에는 추측의 의미도 함께 파악된다.

중세어에서는 믿음이나 느낌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형태가 확인된다.

- 5. (가) 衆生의 福이 다오거다 <석보상절 23,28>
- (나) 崔九의 집 알퓌 몇 디월 드리노 <두시 언해 16,52>
- (다) 내 이제 훤히 즐겁과라 <법화경 언해 2,137>
- (라) 흐마 비 오려다 <월인석보 10,85>

5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믿음이 파악된다. (가)는 ‘-거-’가 자동사에 붙었고, (나)는 ‘-어-’가 타동사 ‘듣다’에 붙었다. (다)는 ‘-거-’에 선어말 어미 ‘-오-’가 화합되었다. (라)는 미래 시제의 ‘-리-’에 ‘-어-’가 붙었다. ‘-거 / 어-’가 동사 어간에 바로 붙으면 믿음의 의미를 부수하여 현재 완료적인 의미가 파악된다. (가)는 ‘틀림없이 ... 다했다’, (나)는 ‘틀림없이 ... 들었느냐’로 해석된다. (라)는 현대어의 ‘곧 비 오렸다’의 소급형이다.

- 6. (가) ○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서쓰면 입시울 가빅야븐 소리 드외느니라 <훈민정음 언해>
- (나)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못흙 노미 하니라 <훈민정음 언해>

6은 객관적 믿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대어와 차이가 없다.

- 7. (가) 그되 가 들 찌비 불췌 이도다 <석보상절 6,35>
- (나) 太子 | 그런 사르미시면 이 이리 어렵도소이다 <석보상절 11,19>
- (다) 물애 힌 디 새 느라 도라오놏다 <두시 언해 10,35>
- (라) 世尊이 世間애 나샤 甚히 奇特호샏다 <월인석보 7,14>
- (마) 德이여 福이라 호늘 나으라 오소이다 <악학궤범, 동동>

7은 느낌 표시의 활용형이다. (가), (나)에는 ‘-도-, -돏-’이, (다), (라)에는 ‘-웃-’이 나타났다. (마)에는 ‘-스-’에 선어말 어미 ‘-오-’가 붙었다. 느낌의 선어말 어미가 동사에 직접 연결되면 완료로 해석된다. (가)는 ‘이루어졌구나’, (마)는 ‘왔습니다’로 해석된다. 느낌은 상황에 따라 슬픔과 기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세어에도 동작상이 있다.

- 8. 드룬 이 ㅼ트 ㅁ올히 불갬느니라 <두시 언해 8,36>

8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형용사 ‘있다’가 결합된 것인데, 완료의 의미를 표시한다. 중세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널리 쓰인다.

### (3) 높임과 낮춤

- 1. (가) (이성계)... 모딘 도즈골 물리시니이다 <용비어천가 35장>

(나) 善慧 精誠이 至極 訶실씩 <월인석보 1,10>

1은 주체 높임법이다. (가)는 주어 명사 ‘이성계’가 높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썼다. (나)는 간접 주체 높임법이다.

2. (가) 내 쫓... 부터웃 <보스븐면> <석보상절 6,40>

(나) 내 아래브터 부터긔 이런 마를 몬 듣즈브며 <석보상절 13,44>

(다) 善女人이... 無量壽佛의 나 正法 듣줍고져 發願호디 <월인석보 9,36>

2는 객체 높임법이다. 객체란, 목적어 명사와 부사어 명사를 포괄한 말이다. (가)는 목적어 명사 ‘부터’를 높이고, (나)는 부사어 명사 ‘부터’를 높인다. (다)는 간접 객체 높임법이다.

중세어의 상대 높임법의 대표적인 것은 訶라체와 訶쇼셔체이고, 이 밖에 반말이 있다.

3. (가) 소리썸 듣노라 <석보상절 6.15>

(나)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용비어천가 125장>

(다) 열븐 어르믈 하눌히 노기시니 <용비어천가 30장>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슬브리 <용비어천가 87장>

(가)는 訶라체, (나)는 訶쇼셔체이고 (다)는 반말이다. 용비어천가에서는 청자가 일반 백성일 때에는 반말이 쓰였다.

#### (4)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

형태소의 기능을 띠고 있는 선어말 어미 ‘-오-’는 기능이 단순하지 않다.

1. (가) 나 百年入 한 病에 訶올로 臺에 올오라 <두시 언해 10,35>

(나) 내 스믈여늬 字를 땡노니 <훈민정음 언해>

(다) 내 이제 分明히 너드려 닐오리라 <석보상절 19,4>

1은 주어 대명사가 화자 자신(제1인칭)일 때에 이에 일치하여 서술어에 ‘-오-’가 나타난 것이다.<sup>1</sup> 드물기는 하지만, 주어 명사가 청자(제2인칭)일 때에도 ‘-오-’가 쓰이는 일이 있다.<sup>2</sup>

<sup>1</sup>이런 점을 중시하여 ‘-오-’를 제1인칭 활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sup>2</sup>이런 점을 중시하여 ‘-오-’를 의도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2. (너) 다시 모뎨 안조되 端正히 호리라 <몽산법어 언해 2>

‘-더-, -거-’에 ‘-오-’가 화합된 ‘-다-, -과-’는 거의 화자 주어에 일치한다.

3. (개) (나) 岐王入 집 안해 상네 보다니 <두시 언해 16,52>

(나) (나) 곳 디는 時節에 쯤 너를 맛보과라 <같은>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오-’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꾸미는 말의 의미상의 목적어 일 때에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4. 엇논 藥이 므스것고 <월인석보 21,215>

4의 ‘藥’은 ‘얻다’에 대하여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sup>3</sup> 그러나 다른 성분으로 전개 할 때에는 예외가 많아 통일된 규칙을 찾기가 쉽지 않다.

## (5) 문장의 종결

중세어의 문장 종결법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다. 문장 종결법은 상대 높임법과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1. 이 道를 이쨌 사르문 브료물 훈그티 흐는다 <두시 언해 25,26>

1은 평서문이다. ‘-느-’와 같은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밖에도 느낌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앞서서 여러 가지의 평서문이 구성된다.

중세어의 감탄문은 대부분 느낌의 선어말 어미에 기대는데, 그런 기능을 맡는 종결어미는 ‘-르쨌, -너더’ 정도이다.

2. (개) 내 아드리 어딜쨌 <월인석보 2,7>

(나) 들히 마리신더 <악학궤범, 정과정>

중세어의 의문문은 현대어와 다른 점이 많다.

3. (개) 이 썩리 너희 쥬가 <월인석보 8,94>

(나) 엇논 藥이 므스것고 <월인석보 21,215>

3은 의문 보조사가 붙어 이루어진 의문문이다. (개)는 판정 의문문이고, (나)는 설명 의문문이다. 설명 의문문은 물음말을 동반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인 데 대하여, 판정 의문문은 가부(可否)를 묻는 의문문이다. 중세어의 설명 의문문은 현대어와는 달리 ‘고’를 취하였다.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흐라체의 제 1,3인칭 의문문에 서도 구별된다.

<sup>3</sup>이런 점을 중시하여 관형사형의 ‘-오-’를 대상 활용 또는 목적격 활용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다.

- 4. (가) 앗가불 쁘디 잇느니여 <석보상절 6,25>  
 (나) 究羅帝 이제 어디 잇느뇨 <월인석보 9,36상>

4-(가)는 관정 의문문, (나)는 설명 의문문이다. 3과 4를 중심으로 할 때, 중세어의 관정 의문문은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아, 어’이고, 설명 의문문은 ‘오’임을 알 수 있다. 중세어에는 흐라체에서 제2인칭 주어 대명사 ‘너’에 일치하여 쓰이는 어미가 있었다.

- 5. (가) 네 모르던다 <월인석보 21,195>  
 (나) 네 엇데 안다 <월인석보 23,84>

5-(가)는 관정 의문문이고, (나)는 설명의문문이다. 이 때에는 두 의문문이 형태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흐쇼셔체에서도 구별된다.

- 6. (가) 사로미 이러커늘사 아들을 여희리잇가 <월인천강지곡 기 143>  
 (나) 몇 間<sup>ㄷ</sup> 지비 사르시리잇고 <용비어천가 110장>

이 곳에서 모음 ‘아’와 ‘오’가 대립되어 두 의문문을 구별하였다.

- 7. (가) 어디 보스랄까 <석보상절 24,37>  
 (나) 데 엇던 功德을 뒋더신고 <석보상절 24,37>

7은 간접 의문문에서 두 종류의 의문문이 구별되는 예이다.

- 8. (가) 첫소리를 어울워 뵈 디면 글바쓰라 <훈민정음 언해>  
 (나) 比丘들하 부텃 양즈를 보아라 <석보상절 23,13>  
 (대) 生生의 내 願을 일티 아니케 흐고라 <월인석보 1,13>  
 (래) 淨土의 흔디 가 나사이다 <월인석보 8,100>

8은 명령문과 청유문이다. (가)는 흐라체이고, (나)는 믿음의 선어말 어미를 취한 형태이며 (대)는 반말의 명령문이다. (래)는 청유문이다.

- 9. 내 가는 디 남 갈세라 <약장가사, 한림별곡>

9는 경계의 뜻을 지니고 있다. ‘가지 않을까 두렵다’를 의미한다.

## (6) 긍정과 부정

중세어의 부정문은 현대어와 거의 차이가 없다.

1.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씩 <석보상절 13,48>

1은 체언의 부정문이다.

2. (가) 耶輸 | 손지 들디 아니호시고 <석보상절 6,7>  
(나)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뵈씩 <용비어천가 2장>

2는 용언의 ‘아니’ 부정문이다. (가)는 긴 부정문, (나)는 짧은 부정문이다.

3. (가) 부터 맞나디 몰호며 <월인석보 17,91>  
(나) 부터를 못 맞나며 <석보상절 19,34>

3은 ‘몰’ 부정문으로서,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다.

중세어에도 명사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동사는 ‘아니’가 사이에 끼여드는 일이 많다.

4.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호리라 <월인석보 21,130>

중세어에도 ‘말다’ 부정문이 있다.

5.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 <용비어천가 110장>

## 3.3 문장의 짜임새

### (1) 문장 속의 문장

1. (가) 부테 授記호샤미 글 쉰미 근고 <월인석보 8,96>  
(나)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볼씩 <월인석보 1,13>

1은 명사절로 안기는 것이다. (가)는 ‘-음 / -음’ 명사형이고, (나)는 ‘-디’ 명사형이다.

2. 大愛道 | 善호 쁘디 하시며 <월인석보 10,19>

2는 서술절로 안겨 있는 것이다. 주어가 둘 겹쳐 있는 문장이다.

3.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뵈씩 <용비어천가 2장>



3은 관형절로 안겨져 있는 것이다.

4. 돈 업시 帝里에 살오 <두시 언해 20,37>

4는 부사절로 안겨 있는 것이다.

5. (가) 이 比丘 | ... 널오되 “내 너희들홀 업시우디 아니흐노니 너희들히 다 당다 이 부테 드외리라” 하더니 <석보상절 19,37>

(나)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르시니이다 <월인석보 13,32>

5-(가)는 직접 인용이다. 큰 문장의 서술어가 앞에 오고, 끝에 인용동사 ‘흐다’가 와 있다. 중세어의 인용문은 대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현대어에 보이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5-(나)는 간접 인용이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따로 없으므로 대명사와 상대 높임법으로 분간해야 한다. 이 문장은 여래의 말 ‘너희 내 아드리라’를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간접 인용이 된다.

## (2) 이어진 문장

중세어의 이어진 문장도 연결 어미와 접속 조사에 기대어서 이루어진다. 이 곳에서는 연결 어미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이어진 문장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가) 子는 아드리도 孫은 孫子 | 니 <월인석보 1,7>

(나) 또 玉女들히 虛空에서 온가짓 풍류 흐며 굴근 江이 뭍고 흐르디 아니하며...  
 온 가짓 病이 다 도흐며 一切 즘갯 神靈이 다 侍衛<sup>호</sup>습더라 <월인석보 2,32-33>

1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가)는 연결어미 ‘-고’(>오)에, (나)는 ‘-며’에 기대어 이어졌다.

2. (가) 이스른 오늬 바물 조차 히니 드룬 이 넷 ㅁ울히 불갯느니라 <두시 언해 8,36>

(나)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뿔씩 ㅁ도코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 2장>

2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가)는 ‘-니’에, (나)는 ‘-ㄴ씩’에 각각 기대어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3. (가) 아래 가신 八嬖女도 니거시니 므스기 썩보리잇고 <월인석보 8,93>

(나)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시관딤 쥬벼느로 이 門을 여르시느니잇고 <월인석보 23,84>

(다) 혼 사름 勸호야 가 法 듣게 혼 功德도 이러호곤 호물며... 말다비 修行호미썩녀  
<월인석보 17,53-54>

(래) 호나는 比丘 | 큰 戒를 디녀 잇거든 比丘尼 가 正法을 비호디비 업시우물  
말 썩오 <월인석보 10,20>

3은 연결 어미가 주절의 문장 종결법에 제약을 주는 예들이다. (ㄱ)는 연결 어미 ‘-니’가 선어말 어미 ‘-거’를 앞세우면 주절에 의문형이 일치됨을 보여 준다. (나)는 연결 어미 ‘-관딤’가 종속절에 쓰이면 앞에 물음말이 오고 이에 일치하여 주절은 의문형으로 끝나는 예이다. (다)는 종속절에 연결 어미 ‘-곤’이 오면 이에 일치하여 주절에 의문형이 오는 예이다. 이와 함께 부사 ‘호물며’가 어울리기도 한다. (래)는 연결 어미 ‘-디비’가 종속절에 쓰이면 주절에 부정 표현이 오는 예이다.

### (3) 문장과 이야기

중세어에는 이야기로 설명해야 할 현상이 현대어보다 더 많다.

1. 나랏 말썽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홍 배 이셔도 막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홍 노미 하나라  
<훈민정음 언해>

1은 현대어라면 두 문장으로 끊어질 수 있는 큰 문장이다. 곧 ‘아니홀썩’는 뒤에 지시 표현이 따르기 때문에 ‘아니호느니라’와 같은 종결형으로 바꿀 수 있다. 중세어에는 이런 문장이 매우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장이 3, 4장에 걸쳐 이어지는 일도 있다. 그 속에는 대화가 여러 개 끼여드는 일도 많다. 이런 글들은 문장이라기보다 이야기라고 하는 편이 좋다.

중세어의 시가 작품 가운데어는 배경 설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생략된 성분을 가려 내기 어려운 것이 많다.

2. 스그를 軍馬를 이길썩 호북사 물리조치샤 모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용비어  
천가 35장>

2는 이 노래만 가지고는 주어 명사를 찾을 수 없다. 배경 설화를 고려하면 ‘이길썩’의 주어 명사는 원나라 장수 ‘나하추’이고, 뒤의 높임의 활용형들은 그 주어 명사가 ‘이성계’이다.

중세어에도 대화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일이 많다.

3. (가) 구이 : 뜨스게 쓰시리?

(나) 선혜 : 부텃긔 받즈보리라 <월인석보 1,10>

3은 석가모니의 전신인 선혜(善慧)와 그의 부인 야수(耶輸)의 전신인 구이(俱夷)가 주고받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참고하면 (가)에는 ‘그디’가, (나)에는 ‘나’가 각각 나타나야 한다.

중세어의 보조사도 현대어에 미루어 체계를 세울 수 있다.

4. 꺾(단독), 사(특수), 란(지적), 곶(여운), 가 / 고(의문)

4는 현대어에 보이지 않는 보조사이다. 중세어의 보조사도 전제된 생각이나 함축된 의미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5. (가) 뒤혜는 모딘 도죽 알퓌는 어드본 길혜 업딘 번계를 하눌히 불기시니 <용비어천가 30장>

(나) | 와 | 와 | 와 | 와 | 와 란 올흔 녀기 브더쓰라 <훈민정음 언해>

(다) 늘거 가매 외르윈 빅웃 잇도다 <두시 언해 14,4>

(라) 이 각시사 내 언니논 믱스매 맛도다 <석보상절 6,14>

5-(가)는 보조사 ‘는 / 는’이 대조의 의미를, (나)는 ‘란’이 지적의 의미를, (다)의 ‘웃’은 단독의 의미를, (라)의 ‘사’는 특수 의미를 각각 표시한다.

중세어의 지시어도 현대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6. 내 이를 爲호야 어엿비 너겨 <훈민정음 언해>

6의 ‘이’는 앞선 문장의 내용, 곧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리킨다.